

THE WHOLESALE.

산업을 잇는 사람들의 주간지

특집 — COVER STORY

AI 인프라 붐,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데이터센터·전력·수소가 끌어올리는 새 수요의 지형. 반도체 조정 국면 뒤에서 움직이는 진짜 신호와, 수입 산업재 유통이 잡아야 할 다음 기회를 짚는다.

01 — 반도체

5% 조정의 해부

폭락 뒤 숫자가 말하는 것

02 — 산업안전

밀폐공간의 침묵

측정이 곧 생존이다

03 — 정전기

10⁸Ω의 경계선

분체가 터지기 전에

EDITOR'S LETTER

창간에
부쳐

수입 산업재를 유통한다는 건, 결국 남의 나라 좋은 기술을 우리 현장에 정확히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 연결의 감(感)을 매주 한 장의 지도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시장이 5% 흔들린 주에도, 진짜 수요가 어디서 자라는지 — 데이터센터, 전력, 그리고 안전 — 를 놓치지 않는 것. 숫자 뒤의 방향을 읽고, 그 방향에 우리가 다루는 해법을 겹쳐 보는 것. 그게 이 매거진이 하려는 일입니다.

창간 준비호를 엽니다. 매주 금요일, 산업을 잇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서 뵙겠습니다.

발행인 · 홍기정

CONTENTS

01	COVER STORY · 반도체 5% 조정의 해부	03
02	MARKET DASHBOARD 주간 마켓 대시보드	05
03	INDUSTRY BRIEFS 산업 브리프	06
04	WI CONNECTION · 산업안전 분체가 터지기 전에	07
—	MASTHEAD 발행정보 · 문의	08

THE WHOLESALE.

산업을 잇는 사람들의 주간지 · 매주 금요일 발행

특집 — 7·8 코스피 급락

5% 조정의 해부

폭락 뒤, 숫자가 말하는 것

지난 7월 8일, 코스피는 전일 증가 대비 5.35% 무너졌다. 사이드카가 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에 동시에 걸렸고, 삼성전자(-6.25%)와 SK하이닉스(-5.68%)가 나란히 6% 안팎 빠졌다. 그런데 같은 날,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내놨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폭락했다.

방아쇠는 모건스탠리였다. "삼성·SK 비중을 줄이라"는 투자의견이 나오자,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낙관론에 이미 선반영돼 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꺼번에 터졌다. 좋은 실적이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소비된 셈이다.

역설적 신호도 있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앞두고, 선행 PER이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 앞질렀다(2026년 예상 실적 기준 6.79배 대 6.77배). 조정은 가팔랐지만, AI 인프라를 향한 자본의 방향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다.

수입 산업재 유통의 눈으로 보면, 이 주의 진짜 뉴스는 환율이었다. 원/달러 1,528.2원(7·7 서울환시 마감, 전일 대비 -2.1원) — 소폭이나마 안정세는 달러 사입 단가에 숨통을 틔운다. 반도체 펩의 조정은 단기 투자심리의 문제일 뿐, 데이터센터·전력·수소로 이어지는 설비 투자의 큰 줄기는 오히려 굽어지고 있다.

7·8 종가 · 전일 대비 (KST)

코스피	7,246.79 ▼5.35%
코스닥	785.00 ▼5.56%
삼성전자	▼6.25%
SK하이닉스	▼5.68%
원/달러 (7·7 마감)	₩1,528.2 ▼2.1
삼성 2Q 영업이익 (7·7 발표)	89.4조

실적은 탄탄했다.
흔들린 건
가격표였다.

조정의 세 층위 — 무엇이 팔렸고, 무엇이 남았나

- 트리거 — 모건스탠리의 경고 (7·8)

"삼성·SK 비중을 줄이라"는 리포트가 방아쇠. AI 낙관이 이미 선반영된 밸류에이션에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했다.
- 펀더멘털 — 실적은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원(7·7 발표). 실적 시즌의 숫자는 오히려 상향 흐름 — 무너진 건 이익이 아니라 멀티플이다.
- 자본의 방향 — 떠난 게 아니라 갈아탄다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대기, 2026F PER 삼성 첫 역전(6.79배 대 6.77배). 글로벌 자본의 AI 메모리 베팅은 진행형이다.

7·8 장중 타임라인

KOSPI · 2026-07-08 (KST)	
09:00 개장	7,452.48 — 전일 종가 대비 -2.66%로 출발
오전	7,350선까지 밀리며 낙폭 확대
장중	저가 매수 유입 — 한때 상승 전환
오후	프로그램 매도 확대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7·7 이어 이틀 연속)
15:30 종가	7,246.79 — 전일 대비 -5.35% (-409.52pt)

수입 산업재 유통의 관전 포인트

01 — 환율 사입 단가의 숨통 원/달러 1,528.2원(7·7 마감) — 달러 사입 원가 부담이 소폭 완화됐다.	02 — 설비투자 수요는 주가보다 길다 데이터센터·전력·수소 투자 큰 줄기는 유지. 산업재 수요는 느리고 길게 움직인다.	03 — 안전·규제 이연되지 않는 지출 접지·가스감지·방폭 같은 법정 안전 투자는 조정기에도 미룰 수 없는 필수 지출이다.
--	--	---

조정은 **가격**의 사건이지,
수요의 사건이 아니다.

주간 마켓 대시보드

2026년 7월 둘째 주 · 지수·종목 = 7월 8일 종가, 전일 대비 · 환율 = 7월 7일 서울환시 마감 (KST)

코스피 7,246.79 ▼ 5.35% · 전일 대비	코스닥 785.00 ▼ 5.56% · 전일 대비	원 / 달러 ₩1,528.2 7·7 마감 · ▼ 2.1원
삼성전자 89.4조 2Q 영업이익 · 7·7 발표	SK하이닉스 6.79배 2026F PER · 삼성 첫 추월	사이드카 양 시장 7·7~7·8 연속 발동

산업 브리프

반도체

모건스탠리의 '비중 축소' 경고가 방아쇠. 슈퍼사이클 기대가 선반영된 상태라 호실적이 되레 차익 실현 명분이 됐다. 다만 AI 수요 자체는 탄탄.

실적 · IT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원(7·7 발표) '깜짝'. SK하이닉스는 나스닥 ADR 상장을 앞두고 선행 PER이 삼성을 사상 처음 앞질렀다.

환율

원/달러 1,528.2원(7·7 마감)으로 소폭 안정. 수입 산업재 유통엔 달러 사입 단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 설비 투자 큰 줄기는 유지.

7·8 주요 낙폭 — 전일 종가 대비

SK하이닉스		−5.68%
삼성전자		−6.25%
코스피		−5.35%
코스닥		−5.56%

산업 브리프

커버 주간 7월 6일(월)~9일(목) · 각 항목에 발생일·매체 표기 (KST)

에너지 · 화학

K배터리, '메이드 인 EU' 반등 예고

고유가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현지 생산 K배터리**의 반등 기대가 커졌다. 유럽 공장 선투자가 회수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신호다.

7·8 보도 · 파이낸셜뉴스

제조 · 중공업

졌지만, 미국이 왔다

캐나다 잠수함은 독일 TKMS로 기울었다(7·6 현지 보도). 이틀 뒤, 미 국방부·해군이 K-조선에 **군함 건조 RFI**를 공식 발송 —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회신했다. MASGA 논의 후 첫 공식 절차다.

7·8 보도 · 파이낸셜뉴스

제약 · 바이오

셀트리온, 역대 2분기

매출 **1조 3,000억** · 영업이익 **4,300억 원** — 전년 동기 대비 각 +35.2%, +77.3%. 바이오시밀러 훈풍 속 ADC 신약(FDA 패스트트랙 2건)도 순항 중이다.

7·3 발표 · 머니투데이

EPC · 인프라 레이더

호남 반도체 산단, 연내 첫 삽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올해 말 착공,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잡았다(7·8 단독). 조선업계는 발전설비·해상풍력·데이터센터로 '에너지 기업' 변신 중(7·9) — AI 전력 수요가 수주 지도를 바꾼다.

7·8 파이낸셜뉴스 · 7·9 머니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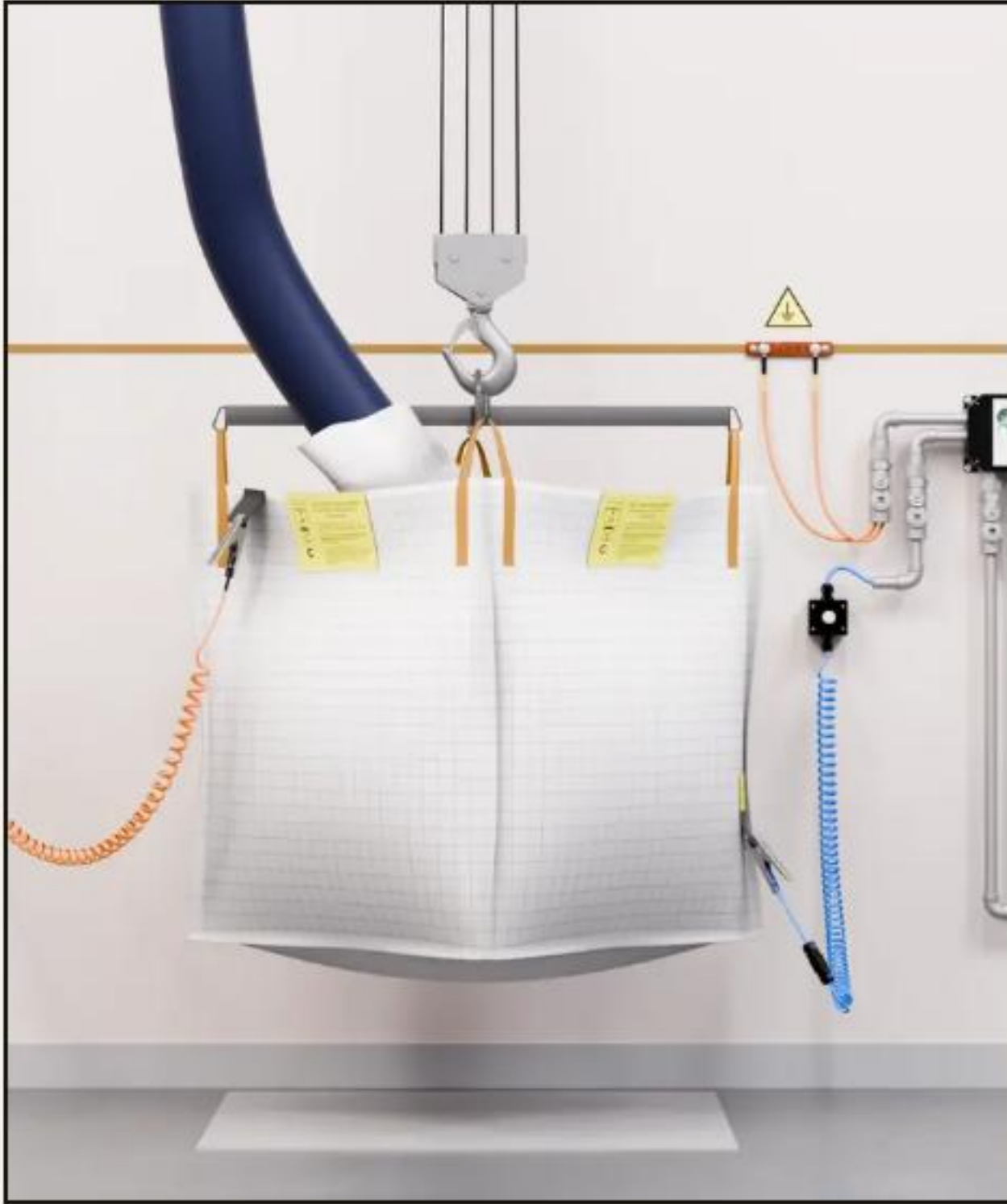
NEXT WEEK — 로테이션

다음 호 커버 = 에너지 · 화학

이번 주 산업 이슈 ↔ 우리가 다루는 해법

분체가 터지기 전에

반도체도 이차전지도 결국 '가루'를 다룬다. 그 가루가 쌓는 정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 폭발의 씨앗.



Earth-Rite® II FIBC — Type-C 백의 접지 저항을 채움·비움 내내 상시 감시.
Courtesy of Newson Gale Ltd.

Earth-Rite® II FIBC

미세한 분체가 관을 흐르고 백(bag)에 담기는 순간, 마찰로 정전기가 쌓인다. 국제 표준(IEC 61340)은 대전방지 **Type-C FIBC**의 안전 조건을 대지저항 **$10^8\Omega(100M\Omega)$ 이하**로 규정한다. 문제는 이 저항이 '한 번 측정하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Newson Gale의 **Earth-Rite® II FIBC**는 백을 채우고 비우는 내내 접지 저항을 실시간 감시한다. $10^8\Omega$ 을 넘는 순간 — 접지가 확실하지 않은 순간 — 공정을 즉시 멈춘다. 측정이 아니라 **상시 감시**가 핵심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①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시 감시는 그 '확실함'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국내 독점 대리점 · 팀에스 시공 턴키

WHOLESALE INDUSTRY

THE WHOLESALE.

산업을 잇는 사람들의 주간지

Wholesale Industry는 글로벌 산업 안전·설비 기술을 한국 현장에 연결하는 수입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가스 감지부터 정전기 접지, 무화염 폭발 방산, 밀폐공간 안전까지 — 검증된 해외 제조사의 솔루션을 국내 산업 현장에 정확히 매칭하고, 계열 **타임에스**의 전기공사 역량으로 시공까지 잇습니다.

가스 감지 · Uniphos

정전기 접지 · Newson Gale

무화염 폭발 방산 · IEP

산업용 점화 · Tesi

NEXT ISSUE — VOL.2

AI 데이터센터, 전력이 병목이다

WEB

wholesale-k.com

MAIL

sales@wholesale-k.com

TEL

031-372-3332